

01

3년 뒤의 폭탄을 막아라, 당신의 비서 알림톡

- 잊기 쉬운 세금 의무, 스마트폰으로 미리 챙겨드립니다 -

프롤로그: 어느 날 날아온 세금 고지서

부동산을 취득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하는 날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법무사에게 일임하여 취득세 신고를 마치고 하죠.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3년 안에 옛날 집을 팔아야 한다거나, 생애 최초 감면을 받으려면 3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해야 한다는 조건들. 법무사님이 설명해 주셨겠지만, 이사집을 나르고 새집에 적응하다 보면 까맣게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다 2~3년 뒤, 갑자기 구청에서 가산세까지 붙은 수천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아차, 깜빡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억울하다고 하소연해도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사실이니깐요. 강남구 재산세과는 이런 안타까운 비극을 막고 싶었습니다. 납세자가 잊어버릴 때쯤, 우리가 비서처럼 미리 알려주면 어떨까?

제1막: 땡동, 강남구청입니다

2025년 8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내 취득세 알림톡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상반기에 취득세를 신고한 구민 중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891명을 추렸습니다.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은 분, 생애 최초 감면을 받은 분, 그리고 상속을 받았지만 아직 신고하지 않은 분들이었습니다.

땡동! 스마트폰 화면에 강남구청 알림톡이 떴습니다. [일시적 2주택 중과세 유예 안내] 고객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한 내에 처분하지 못하실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맞다, 집 내놓는 걸 깜빡하고 있었네! 전입신고를 바로 해야 하는 줄 몰랐는데, 알려줘서 고마워요. 단순한 안내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납세자의 재산을 지켜주는 골든타임 정보였습니다.